

## 성인남성의 의복색채선호와 색채관심에 관한 연구 -연령, 성격, 피부색을 중심으로 -

류 숙 희 · 김 보 연\*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 A Study on Adult Men's Color Preference and Color Interest in Clothing -Focusing on Age, Personality and Skin Color -

Sook-Hee Ryou and Bo-yeun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Clothing &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interest, the preference for clothing color, in men of their 20's and 30'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questionnaires completed by 546 men in their 20's and 30's. The SPSS package was used for data analysis which includes factor analysis, t-test,  $\chi^2$ -test, Scheffé test, and Cronbach's  $\alpha$  to measure the reliability.

This study shows the following results.

1. The interest for clothing color was related to individual factors.(age, marriage status, personality)
2. Men in their 20's and 30's preferred neutral color, blue, yellow.
3. Men in their 20's and 30's liked monochromatic match in clothing color.
4. The preference for clothing color were appeared to be influenced by the age, personality, skin color.

*Key words* : adult men's color preference(의복색채선호), color interest(색채관심), personality(성격), skin color(피부색).

#### I. 서 론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의복을 통해서 표출된다. 의복은 착용자의 나이나 성별뿐만 아니라 기호, 직업, 심리상태 등을 표현하며 의복의 많은 변인 가운데 색채, 질감, 디자인의 기호성과 관련을 가진다. 특히 의복의 색채는 강력하고 아름답고 미묘한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작용하여 의복선호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Chamber<sup>1)</sup>는 색채심리와 의복과의 관계는 중요한 것으로서, 적합한 색채의 의복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생활에 알맞은 외모를 가꾸어주며 개인의 성격, 나이, 성별 등을 구별해 준다고 의복 색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이렇듯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색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되어 오즈음 많은 의류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대부분 아동이나 여성에 국한되어 남성복의 색채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1) Chambers, H. G., "Color and Design", New York: Prentice Hall Inc., 1965, p.180.

한편 1990년대를 전후로 전통적으로 고수되어 왔던 보수적인 남성복이 점차 패션을 지향하게 되면서 남성들도 의복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종래 여성들의 것으로 생각되어진 색채들을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30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자켓과 바지를 중심으로 한 의복색채선호와 색채 관심도에 대해 알아보고 성격 및 피부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봄으로써 의복에 있어서 색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의복 색채 계획을 확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의류 업체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연령과 의복색채

대개 난색은 행복하게, 자유롭게, 발랄하게, 젊게, 힘차게 보이며 한색은 온화하게, 경험이 풍부하게, 성숙하게, 침착하게 보인다. 명색조는 순수하게, 젊게, 천진난만하게 보이며 암색조는 나이가 들게, 부드럽게, 원숙하게 보인다. 선명한 채도는 젊고 발랄하게 보이며 반면에 탁한 채도와 무채색은 성숙된 경험의 세련됨, 장수, 평온을 불러 일으킨다. 어린이들은 검은 색이나 탁한 색보다는 옅고 자극이 적은 색이 바람직하고, 10대는 고명도나 고채도의 색을 애용하고, 20~30대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색이 세련된 느낌을 주며, 무채색은 공식적이며 젊잖은 분위기를 준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선명한 명색조를 거의 입지 않는다<sup>2)</sup>.

### 2. 성격과 의복색채

의복은 개성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장점을 제3자에게 인식시켜 주는데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의복은 자신의 결점을 감추는 역할과 미를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향성의 사람은 적색, 황색 계통을 좋아하고, 내향성의 사람은 녹색, 청색 계통을 좋아하며, 적색은 심한 감정적, 현실적인 향락주의자, 황색은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 청색은 정신생활을 중시하는 사람, 황적색은 자주성과 개성이 없는 사람, 흑색은 표리부동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좋아하는 색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선호색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고 또 개인의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sup>3)</sup>.

### 3. 피부색과 의복색채

피부색과 의복색채의 조화는 유색인종의 경우에 간단하지 않다. 흑인종, 갈색인종, 황색인종간에는 그 피부색에 맞는 의복색채의 선택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같은 피부에 같은 의복색채라도 재질에 따라 빛의 반사각이 달라져 밝기에 변화가 생기고 또 배색효과와 좋고 나쁨에 따라 유색인종의 피부색에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피부가 흑색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피부색보다 밝은 색을 사용하는 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황색인 피부에 잘 어울리는 색은 옅은 청색이나 밝은 청색의 계통이다. 백색인 피부는 대개 어느 색이나 맞는다고 하나 각기 개성, 체형에 따라 더 잘 어울리는 색이 있는 것이다. 황색인종 중 피부색이 흰 편인 사람은 검정색, 적자색을 입으면 더욱 회계 보여지며, 밝은 탁색의 약색사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어두운 색을 사용할 경우에는 흰 색이나 밝은 색을 갖거나 마후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노랑색에 가까운 피부들 가진 사람은 노랑색을 강조하는 파랑색이나 자색을 피하고, 황록색에서 창록색까지의 계통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sup>4)</sup>.

### 4. 색채선호

색이란 물체에서 보이는 물체색을 말하며 빛의 반사에 의하여 색을 느낄 때 색채라고 말한다. 색채는 물리적인 사물의 외관에 변화하는 착시현상을 만

2) 박소희, 20대 남녀의 의복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대구시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19~20.

3) 김인수,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p.16.

4) 한명숙, 복지와 복색이 의복구성에 미치는 영향, *상명여사대 논문집*, 6, 1977, p.8.

드는 것으로 특별한 색채와 색들의 배합이 시각적인 효과를 만든다. 색채는 먼저 색채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데 색채감각은 심리적, 생리적인 반응이다<sup>5)</sup>.

Radeloff<sup>6)</sup>는 의복에 대한 색채선호 연구에서 명도와 채도가 색채선호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색채선호와 심리적 형태의 관계 연구에서 외향적인 사람은 난색과 고명도의 색을 선호하며, 심리적으로 기분이 우울할 때 사람들은 한색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Lind<sup>7)</sup>는 개인이 선호하는 일반 색상은 의복 색상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었으며, 소비자의 색채선호에는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학적 요인 둘 모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유경숙<sup>8)</sup>의 의복이미지 선호와 티셔츠색 선호와의 관계에서는 독특한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남녀 모두 빨간색을 선호하였으며, 점잖은 이미지를 좋아하는 남자는 빨간과 주황색 티셔츠를 싫어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 20대는 남색을, 여자 20대는 빨간색을 선호하였다.

이인자<sup>9)</sup>는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연구에서 여대생은 한색과 동일색 배색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정삼호<sup>10)</sup>의 성인여성의 의복스타일에 따른 배색 연구에서는 투피스 상의에 대한 하의 배색으로 20대와 40대는 동일색, 30대는 유사색, 50대는 무채색인 흰색을 하의배색으로 선호하였으며, 셔츠와 바지, 블

라우스와 스커트에 있어서 40대를 제외한 20대·30대·50대는 하의보다 열리는 색상의 상의를 높게 선호하였다.

그러므로 색채는 의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연령, 성별, 성격특성이 선호색과 착용 기호색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 ① 20·30대 성인 남성의 의복색채관심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② 20·30대 성인 남성이 선호하는 의복배색에 대하여 알아본다.
- ③ 20·30대 성인 남성의 선호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2. 조사대상

대구시에 거주하는 20·30대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1999년 12월 6일부터 12월 29일까지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563부중 불완전한 응답과 기재상 결함이 있는 것을 제외한 546부가 자료처리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 령		결혼 여부		성 격			피 부 색			교육 정도			
	20대	30대	미혼	기혼	외향적	내향적	보통	검은편	흰편	보통	고졸	초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N	363	183	409	132	150	165	231	167	136	243	70	63	297	116
%	66.5	33.5	75.6	24.4	27.5	30.2	42.3	30.6	24.9	44.5	12.8	11.5	54.4	21.2

- 5) 오경화·정삼호·이현정, 의복색 선호를 중심으로 한 남자 대학생의 패션 관심도 및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2000, p.129.
- 6) Radeloff, D. J.,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1991, pp.59~67.
- 7) Lind, C., "Psychology of color: Similarities between abstract and clothing color preferen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1993, pp.57~64.
- 8) 유경숙,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pp.92~93.
- 9)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2), 1975, pp.785~799.
- 10) 정삼호, 성인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 선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집*, 제1집, 1987, p.137~152.

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표준화된 것이 없으므로 선행연구자들의 기존 설문지<sup>11)~16)</sup>를 기초로 작성된 문항과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함께 사용하였다. <표 2> 의복색채관심관련 문항은 기존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하여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색채관련 문항은 답변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color card를 함께 제시하였다. Munsell의 10색상환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의복 유행색을 조사하여 의복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을 보충하여 총 24색을 2×1cm 크기로 잘라 백지 위에 붙여 제시하였고 결과 분석시 색채는 연구자가 임의로 7개의 Group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Group들을 보면 red계열(빨강, 다홍, 주황), yellow계열(노랑, 연두, 상아색, 밝은 연두), green계열(녹색, 둔한 녹색, 어두운 연두), blue계열(파랑, 밝은 파랑, 남색, 남보라), purple계열(보라, 자

주, 밝은 보라, 둔한 보라), 무채색계열(흰색, 밝은 회색, 회색, 검정), brown계열(회빨강, 어두운 주황)이다. 배경관련 문항에서 성격과 피부색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요인분석, ANOVA, Scheffe test,  $\chi^2$ -test, 대응일치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색채관심도**

의복색채관심의 기준이 되는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분석에서 공유값과 요인 적재값이 작은 8문항을 검토하여 제거하고 17문항을 Varimax회전을 이용한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여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 1은 색채 자체를 중시하는 문항으로 '색채 중요성', 요인 2는 조화를 중시하는 문항으로 '색채 조화성', 요인 3은 색채 선호를 중시하는 문항으로 '색채 선호성', 요인 4는 색채를 무시하는 문항으로 '색채무감각성'이라 명명하였다.

<표 4>는 피험자 특성에 대한 성인 남성의 색채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20·30대 연령에 따른 색채 중요성 측면은 P<.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조화성 측면은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 선호성과 색채 무감각성 측면에 대해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20대가 30대에 비해 색채 자체를 중요시하는 반면 30대는 20대에 비해 색채 조화를 중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성격에 따른 색채 중요성 측면은 P<.01 수준에서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출처

문항내용		문항수	출처
I	의복색채 관심	25	백선원 <sup>11)</sup>
			오은경 <sup>12)</sup>
			이금숙 <sup>13)</sup>
			연구자
II	색채	5	오은경 <sup>12)</sup>
			신지현 <sup>14)</sup>
			연구자
			연구자
III	연구대상자 특성	5	박소희 <sup>15)</sup>
			김인수 <sup>16)</sup>
전체 문항수		35	

11) 백선원,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43~44.  
 12) 오은경,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p.79~80.  
 13) 이금숙, 청년기의 의복색 기호와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57~58.  
 14) 신지현, 여성의 직업환경에 따른 색상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51~53.  
 15) 박소희, 전계서, pp.98.  
 16) 김인수, 전계서, pp.57~58.

<표 3> 색채관심척도 요인분석

요 인	요인 적재값	설명량	Cronbach's $\alpha$
요인 1 : 색채 중요성 - 옷을 입을 때 배색에 신경을 쓴다. - 각종 소품(양말, 구두, 모자, 악세서리 등) 구입시 의복색을 고려한다. -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색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충고를 받는다면 신경이 쓰인다. - 의복색이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1 .76 .72 .65	26.6%	.79
요인 2 : 색채 조화성 - 의복색을 선택할 때 나의 성격을 고려한다. - 의복색을 선택할 때 나의 피부색을 고려한다. - 의복색을 선택할 때 나의 체형을 고려한다. - 의복을 선택할 때 현재 유행하고 있는 색을 고려한다.	.76 .74 .65 .60	14.3%	.69
요인 3 : 색채 선호성 - 의복 구입시 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색의 옷을 구입한다. - 의복 구입시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상을 보고 좋아 보여서 구입한다. - 나는 계절에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색의 옷을 산다. - 의복 구입시 주위 사람들의 권유를 고려한다.	.76 -.55 .50 -.47	11.2%	.63
요인 4 : 색채 무감각성 - 가격이 적당하면 색상에 신경쓰지 않고 옷을 산다. - 나는 옷을 살 때 가격에 중점을 둔다. - 삶은 색에 관계없이 실용성이 있는 색을 선택한다 - 가격이 아무리 싸더라도 싫어하는 색의 옷은 사지 않는다. - 나는 옷을 살 때 매이커에 중점을 둔다.	.74 .62 .58 -.55 .46	9.8%	.62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선호성과 색채 무감각성 측면은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과 보통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색채 자체와 색채 선호

를 중시하는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성격의 사람보다 색채에 대해 무감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피부색에 따른 의복색채관심에 있어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색채 관심도

		색채 중요성	색채 조화성	색채 선호성	색채 무감각성
연 령	20대	3.405 <sup>a</sup>	3.091	2.938	2.915
	30대	3.034	3.348	2.890	2.945
	F 값	15.667***	4.495**	0.663	0.792
성 격	외향적	3.371 <sup>bh</sup>	2.963	3.000 <sup>b</sup>	2.902 <sup>a</sup>
	내향적	2.875 <sup>a</sup>	2.816	2.806 <sup>a</sup>	3.021 <sup>b</sup>
	보통	3.291 <sup>b</sup>	2.943	2.953 <sup>b</sup>	2.920 <sup>ab</sup>
	F 값	12.219***	1.390	3.896**	3.120**

<sup>a</sup>: 평균점수, <sup>b</sup>: Scheffe test 결과, \*  $p<.1$ , \*\*  $p<.05$ , \*\*\*  $p<.01$ .

<표 5> 선호색, 착용 의복색, 유행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 N(%)

구분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무채색	Brown	계
선호색	74(13.6)	112(20.5)	44( 8.1)	124(22.7)	26(4.8)	152(27.8)	14( 2.6)	546(100)
착용 의복색	자켓 16( 2.9) 바지 2( 0.4)	88(16.1) 34( 6.2)	48( 8.8) 30( 5.5)	64(11.7) 186(34.1)	10(1.8) 10(1.8)	266(48.7) 224(41.0)	54( 9.9) 60(11.0)	546(100) 546(100)
유행 의복색	48( 8.8)	62(11.4)	134(24.5)	18( 3.3)	12(2.2)	212(38.8)	22( 4.0)	546(100)
구입희망 의복색	자켓 44( 8.1) 바지 4( 0.7)	84(15.4) 36( 6.6)	48( 8.8) 36( 6.6)	68(12.5) 98(17.9)	28(5.1) 18(3.3)	238(43.6) 310(56.8)	36( 6.6) 44( 8.1)	546(100) 546(100)

\* p<.1,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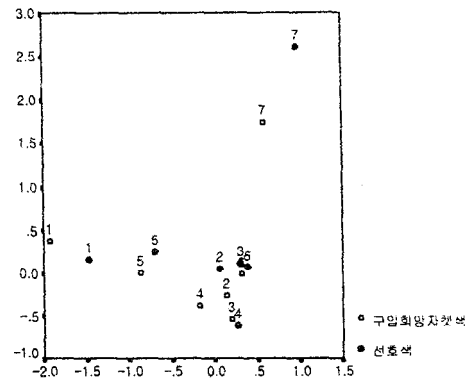
## 2. 색채선호

성인 남성의 선호색 및 착용 의복색, 유행 의복색, 그리고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의복색을 조사한 내용은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30대 성인 남성이 선호하는 색은 무채색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blue 22.7%, yellow 2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 오은경<sup>17)</sup>은 기호색이 연한 베이지, 노랑, 파랑, 보라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금숙<sup>18)</sup>은 기호색이 녹색, 흰색, 남색의 순으로 나타났고, 박소희<sup>19)</sup>는 기호색이 Pastel계, Red계, Blue계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blue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조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색을 보면 자켓색은 무채색 48.7%, yellow 16.1%, blue 11.7%의 순으로 나타났고, 바지색은 무채색 41.0%, blue 34.1%, brown 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채색의 이미지가 비교적 수수하고 진정되는 감정을 전달하고 겨울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박소희<sup>20)</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유행한다고 생각하는 의복색은 무채색이 38.8%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green 24.5%, yellow 11.4%의 순으로 나타나 요즘 유행하는 의복색과 일치하였으며 이는 최근에 검정, 흰색 등과 함께 회색, 회색면 색조의 무채색 그룹이 증가하는 경향이라는



1:red 2:yellow 3:green 4:blue 5:purple 6:무채색 7:brown

<그림 1> 선호색과 구입희망 자켓색의 대응일치도.

윤지윤<sup>21)</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유행 의복색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색에서 각각의 1순위는 무채색으로 일치를 보였지만 그 외의 유행 의복색에서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바지의 경우 착용하고 있는 의복색에서는 blue가 유행 의복색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중 많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의복색에서는 자켓의 경우 무채색 43.6%, yellow 15.4%, blue 1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바지의 경우 무채색 56.8%, blue

17) 오은경, 전계서, p.52.

18) 이금숙, 전계서, p.37.

19) 박소희, 전계서, p.34.

20) 박소희, 전계서, pp.40~43.

21) 윤지윤, 무채색의 색채 이미지와 복식 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3.

17.9%, brown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은 성인 남성의 선호색과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자켓색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분석한 결과로 자신의 선호색과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의복색의 일치도가 거의 모든 색에서 높게 나타났다.

3. 배색

의복색 중에서 어떤 색을 서로 조화시켜 입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무채색-무채색의 배색이 41.0%로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동

일색 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인자<sup>22)</sup>, 김인수<sup>23)</sup>, 오경화<sup>24)</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표 6)

4. 개인적 특성별 의복색채선호와 색채관심의 차이

1) 연령별

연령에 따른 선호색, 유행 의복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표 6> 의복의 배색 선호

N(%)

의복배색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무채색	Brown	계
Red	-	2(0.4)	8(1.5)	8(1.5)	4(0.7)	14( 2.6)	-	36( 6.6)
Yellow	-	8(1.5)	22(4.0)	6(1.1)	4(0.7)	28( 5.1)	8(1.5)	76(13.9)
Green	2(0.4)	12(2.2)	4(0.7)	8(1.5)	2(0.4)	16( 2.9)	2(0.4)	46( 8.4)
Blue	4(0.7)	12(2.2)	-	12(2.2)	6(1.1)	36( 6.6)	4(0.7)	74(13.6)
Purple	-	2(0.4)	2(0.4)	6(1.1)	10(1.8)	4( 0.7)	-	24( 4.4)
무채색	2(0.4)	20(3.7)	10(1.8)	8(1.5)	6(1.1)	224(41.0)	12(2.2)	282(51.6)
Brown	-	6(1.1)	-	-	-	-	2(0.4)	8( 1.5)
계	8(1.5)	62(11.4)	46(8.4)	48(8.8)	32(5.9)	322(59.0)	28(5.1)	546(100)

<표 7> 연령별 선호색, 유행 의복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

N(%)

구분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무채색	Brown	계	$\chi^2$	
선호색	20대	52(14.3)	64(17.6)	26( 7.2)	88(24.2)	12(3.3)	115(31.7)	6( 1.7)	363(100)	21.131***	
	30대	22(12.0)	48(26.2)	18( 9.8)	36(19.7)	14(7.7)	37(20.2)	8( 4.4)	183(100)		
유행 의복색	20대	40(12.0)	46(13.8)	83(24.9)	12( 3.6)	8(2.4)	132(39.6)	12( 3.6)	363(100)	11.757*	
	30대	8( 4.6)	16( 9.1)	51(29.1)	6( 3.4)	4(2.3)	80(45.7)	10( 5.7)	183(100)		
착용 의복색	자켓	20대	12( 3.3)	62(17.1)	36( 9.9)	34( 9.4)	10(2.8)	185(51.0)	24( 6.6)	363(100)	25.765***
		30대	4( 2.2)	26(14.2)	12( 6.6)	30(16.4)	-	81(44.3)	30(16.4)	183(100)	
	바지	20대	2( 0.6)	30( 8.3)	20( 5.5)	144(39.7)	8(2.2)	131(36.1)	28( 7.7)	363(100)	
		30대	-	4( 2.2)	10( 5.5)	42(23.0)	2(1.1)	93(50.8)	32(17.5)	183(100)	
구입희망 의복색	자켓	20대	40(11.0)	56(15.4)	26( 7.2)	44(12.1)	20(5.5)	151(41.6)	26( 7.6)	363(100)	16.971***
		30대	4( 2.2)	28(15.3)	22(12.0)	24(13.1)	8(4.4)	87(47.6)	10( 5.5)	183(100)	
	바지	20대	4( 1.1)	30( 8.3)	24( 6.6)	63(17.4)	16(4.4)	210(57.9)	16( 4.4)	363(100)	
		30대	-	6( 3.3)	12( 6.6)	35(19.1)	2(1.1)	100(54.6)	28(15.8)	183(100)	

\* p<.1, \*\* p<.05, \*\*\* p<.01.

22) 이인자, 전계서, pp.785~799.

23) 김인수, 전계서, pp.30~31.

24) 오경화, 전계서, p.138.

나타내었다.(표 7)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색을 살펴보면, 20대는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blue, yellow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는 yellow, 무채색, blue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복색의 응답으로는 20·30대 모두 무채색, green, yellow의 순으로 나타나 최근의 유행경향과 일치하고 있으며, 특히 초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회색빛 은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색은 자켓의 경우 20대는 무채색, yellow, green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무채색, blue·brown, yellow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에 20대는 blue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채색, yellow의 순이었으며 30대는 무채색, blue, brown의 순으로 나타나 20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대의 경우 청바지의 착용으로 인하여 blue의 순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30대의 경우 자켓과 바지 착용색에 있어서 bro-

wn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구입하고 싶은 의복에서 구입하고 싶은 자켓색은 20·30대 모두 무채색, yellow, blue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red는 30대보다 20대에서 선호도가 높아 젊음의 절정으로서의 연령적인 감각과 조화를 이루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구입하고 싶은 바지색은 20대가 무채색, blue, yellow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30대는 무채색, blue, brown 순으로 나타나 각각의 1순위는 무채색으로 유행 의복색과 일치하지만 그 외의 색에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2) 성격별

성격에 따른 선호색, 유행 의복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8)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색을 살펴보면, 먼저 외향

<표 8> 성격별 유행 의복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

N(%)

구분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무채색	Brown	계	$\chi^2$	
선호색	외향	34(22.7)	28(18.7)	16(10.7)	30(20.0)	10(6.7)	28(18.7)	4( 2.7)	150(100)	29.945***	
	내향	12( 7.3)	38(23.0)	8( 4.8)	42(25.5)	10(6.1)	51(30.9)	4( 2.4)	165(100)		
	보통	28(12.1)	46(19.9)	20( 8.7)	52(22.5)	6(2.6)	73(31.6)	6( 2.6)	231(100)		
유행 의복색	외향	18(13.0)	10( 7.2)	38(27.5)	4( 2.9)	4(2.9)	50(36.2)	14(10.1)	150(100)	46.610***	
	내향	14( 9.0)	18(11.6)	58(37.4)	8( 5.2)	2(1.3)	53(34.2)	2( 1.3)	165(100)		
	보통	16( 7.4)	34(15.8)	38(17.7)	6( 2.8)	6(2.8)	109(50.7)	6( 2.8)	231(100)		
착용 의복색	자켓	외향	4( 2.7)	22(14.7)	8( 5.3)	22(14.7)	2(1.3)	78(52.0)	14( 9.3)	150(100)	28.435***
		내향	2( 1.2)	36(21.8)	26(15.3)	12(7.34)	4(2.4)	71(43.0)	14( 8.5)	165(100)	
		보통	10( 4.3)	30(13.0)	14( 6.1)	30(13.0)	4(1.7)	117(50.6)	26(11.3)	231(100)	
	바지	외향	-	4( 2.7)	8( 5.3)	46(30.7)	-	66(44.0)	26(17.3)	150(100)	
		내향	2( 1.2)	14( 8.5)	12( 7.3)	54(32.7)	4(2.4)	65(39.4)	14( 8.5)	165(100)	
		보통	-	16( 6.9)	10( 4.3)	86(37.2)	6(2.6)	93(40.3)	20( 8.7)	231(100)	
구입희망 의복색	자켓	외향	12( 8.0)	28(18.7)	12( 8.0)	22(14.7)	8(5.3)	52(34.7)	16(10.7)	150(100)	22.986**
		내향	8( 4.8)	16( 9.7)	17(10.3)	20(12.1)	12(7.3)	84(50.9)	8( 4.8)	165(100)	
		보통	24(10.4)	40(17.3)	19( 8.2)	26(11.3)	8(3.5)	102(44.2)	12( 5.2)	231(100)	
	바지	외향	2( 1.3)	12( 8.0)	14( 9.3)	24(16.0)	10(6.7)	74(49.3)	14( 9.3)	150(100)	
		내향	2( 1.2)	12( 7.3)	14( 8.5)	28(17.0)	8(4.8)	91(55.2)	10( 6.1)	165(100)	
		보통	-	12( 5.2)	8( 3.5)	46(19.9)	-	145(62.8)	20( 8.7)	231(100)	

\* p<.1, \*\* p<05, \*\*\* p<0.01.



적인 성격의 사람은 red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blue, yellow·무채색의 순으로 나타났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blue, yellow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blue, yellow의 순으로 나타나 성격에 관계없이 무채색계통을 좋아한다는 김인수<sup>25)</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유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복색의 경우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과 보통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green, red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green, yellow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인 경우에는 다른 성격의 사람에 비해 green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내향성의 사람은 녹·청 계통을 좋아한다는 김인수<sup>26)</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의 종류별 의복색은 자

켓의 경우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과 보통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yellow·blue, brown의 순으로 나타났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yellow, green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착용색의 경우는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과 보통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blue, brown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blue, yellow·brown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다른 성격의 사람에 비해 green을 착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격에 따른 앞으로의 의복 종류별 구입 의복색은 먼저 자켓의 경우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과 보통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yellow, blue의 순으로 나타났고,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blue, green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blue, green·brown,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무채색, blue, green, 보통 성격의 사람은 무채

<표 9> 피부색별 유행 의복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

N(%)

구분		Red	Yellow	Green	Blue	Purple	무채색	Brown	계	$\chi^2$	
선호색	검은편	20(12.0)	48(28.7)	10( 6.0)	32(19.2)	6( 3.6)	47(28.1)	4( 2.4)	167(100)	31.975***	
	흰 편	14(10.3)	18(13.2)	16(11.8)	46(38.8)	10( 7.4)	28(20.6)	4( 2.9)	136(100)		
	보 통	40(16.5)	46(18.9)	18( 7.4)	46(18.9)	10( 4.1)	77(31.7)	6( 2.5)	243(100)		
유행 의복색	검은편	18(11.2)	12( 7.5)	54(33.5)	-	-	67(41.6)	10( 6.0)	167(100)	42.269***	
	흰 편	14(11.1)	20(15.9)	24(19.0)	4( 3.2)	-	58(46.0)	6( 4.8)	136(100)		
	보 통	16( 7.2)	30(13.6)	56(25.3)	14( 6.3)	12( 5.4)	87(39.4)	6( 2.7)	243(100)		
착용 의복색	자켓	검은편	2( 1.2)	24(14.4)	20(12.0)	26(15.6)	-	77(46.1)	18(10.8)	167(100)	25.112**
		흰 편	6( 4.4)	24(17.6)	6( 4.4)	16(11.8)	-	70(51.5)	14(10.3)	136(100)	
		보 통	8( 3.3)	40(16.5)	22( 9.1)	22( 9.1)	10( 4.1)	119(49.0)	22( 9.1)	243(100)	
	바지	검은편	-	8( 4.8)	12( 7.2)	60(35.9)	-	71(42.5)	16( 9.6)	167(100)	
		흰 편	-	10( 7.4)	8( 5.9)	42(30.9)	4( 2.9)	62(45.6)	10( 7.4)	136(100)	
		보 통	2( 0.8)	16( 6.6)	10( 4.1)	84(34.6)	6( 2.5)	91(37.4)	34(14.0)	243(100)	
구입희망 의복색	자켓	검은편	20(12.0)	26(15.6)	17(10.2)	14( 8.4)	6( 3.6)	66(39.5)	18(10.8)	167(100)	29.898***
		흰 편	6( 4.4)	26(19.1)	8( 5.9)	22(16.2)	2( 1.5)	66(48.5)	6( 4.4)	136(100)	
		보 통	18( 7.4)	32(13.2)	23( 9.5)	32(13.2)	20( 8.2)	106(43.6)	12( 4.9)	243(100)	
	바지	검은편	-	12( 7.2)	14( 9.4)	32(19.2)	2( 1.2)	89(53.3)	18(10.8)	167(100)	
		흰 편	2( 1.5)	8( 5.9)	12( 8.8)	36(26.5)	2( 1.5)	68(50.0)	8( 5.9)	136(100)	
		보 통	2( 0.8)	16( 6.6)	10( 4.1)	30(12.3)	14( 5.8)	153(63.0)	18( 7.4)	243(100)	

\* p<.1, \*\* p<.05, \*\*\* p<.01.

25) 김인수, 전계서, p.19.

26) 김인수, 전계서, p.25.

색, blue, brown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격에 따른 선호색과 착용 의복색, 구입 의복색의 차이를 보면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과 보통인 사람의 경우는 일치하고 있으며, 반면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피부색

피부색에 따른 선호색, 유행 의복색, 착용 의복색, 구입희망 의복색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chi^2$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착용 의복색 중 바지색을 제외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9)

피부색에 따라 선호하는 색을 살펴보면,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yellow, 무채색, blue, 피부색이 흰 사람은 blue, 무채색, yellow, 보통인 사람은 무채색, yellow · blue, red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 종류별 의복색을 보면, 먼저 자켓의 경우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 착용한 의복색은 무채색, blue, yellow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색이 흰 사람이 착용한 의복색은 무채색, yellow, blue의 순으로 나타났고 피부색이 보통인 사람의 착용 의복색은 무채색, yellow, green · blue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무채색, blue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지의 경우 착용자의 얼굴색과 직접 맞는 상의와는 달리 얼굴색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V. 결 론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의복색채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의복색채를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남성의 색채에 대한 관심도

- 1) 연령에 따른 색채 중요성 및 색채 조화성 측면에 대해서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선호성과 색채 무감각성 측면에 대해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대가 30대보다 색채 자체를 중요시하며 반면 30대는 20대보다 색채 조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2) 성격에 따른 색채 중요성, 색채 선호성, 색채 무감각성 측면에 있어서는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선호성 측면에 대해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과 보통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색채 자체와 색채 선호를 중시하며 반면 내향적인 사람은 다른 성격의 사람보다 색채에 대해 무감각한 경향이 있다.

- 2. 성인 남성이 선호하는 색은 무채색, blue, yellow의 순이었으며, 조사 당시 착용 의복색은 자켓의 경우 무채색, yellow, blue, 바지의 경우 무채색, blue, brown의 순이었다. 현재 유행한다고 생각하는 의복색은 무채색, green, yellow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구입할 의복색에서는 자켓의 경우 무채색, yellow, blue, 바지의 경우 무채색, blue, brown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의복의 배색에서는 무채색과 무채색의 배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4. 개인적 요인에 의한 기호도

- 1)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색은 20대의 경우 무채색, blue, yellow, 30대의 경우 yellow, 무채색, blue의 순이었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색은 자켓의 경우 20대는 무채색, yellow, green, 30대는 무채색, blue · brown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바지의 경우 20대는 blue, 무채색, yellow, 30대는 무채색, blue, brown으로 나타났다.

- 2)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색은 외향적인 성격의 경우 red, blue, yellow · 무채색, 내향적인 성격의 경우 무채색, blue, yellow, 보통 성격의 경우 무채색, blue, yellow의 순이었으며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색은 자켓의 경우 외향적인 사람은 무채색, yellow · blue, 내향적인 사람은 무채색, yellow, green, 보통 성격인 사람은 무채색, yellow · blue, 바지의 경우 외향적인 사람은 무채색, blue, brown, 내향적인 사람은 무채색, blue, yellow · brown, 보통 성격인 사람은 무채색, blue, brown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피부색에 따라 선호하는 색은 피부색이 검은 편인 사람은 yellow, 무채색, blue, 흰 편인 사람은 blue, 무채색, yellow, 보통인 사람은 무채색, yellow · blue, red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작

용하고 있는 의복 종류별 의복색을 보면, 먼저 자켓의 경우 피부색이 검은 사람은 무채색, blue, yellow, 피부색이 흰 사람은 무채색, yellow, blue, 피부색이 보통인 사람은 무채색, yellow, green · blue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의 경우는 피부색에 관계없이 무채색, blue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로 볼 때 20·30대 성인 남성은 원색보다는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최근의 유행경향과 일치하며 연구 대상자의 특성(연령, 성격, 피부색)이 의복색채선호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 파악 중에서 성격과 피부색에 대한 판단을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김인수 (1985).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청주지역을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희 (1996). 20대 남녀의 의복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대구시내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원 (1989). 여성의류의 색채선호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현 (1994). 여성의 직업환경에 따른 색상선호도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화 · 정삼호 · 이현정 (2000). 의복색 선호를 중심으로 한 남자 대학생의 패션 관심도 및 성역할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제13집.
- 오은경 (1990).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숙 (1996).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지운 (1992). 무채색의 색채 이미지와 복식 디자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숙 (1991). 청년기의 의복색 기호와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 (1975).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14권 제2호.
- 정삼호 (1987). 성인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 선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문화논집, 제1집.
- 한명숙 (1977). 복지와 복색이 의복구성에 미치는 영향. *상명여사대 논문집*, 제6집.
- Chambers, H. G. (1965). "Color and Design". New York: Prentice Hall Inc.
- Lind, C. (1993). "Psychology of color: Similarities between abstract and clothing color preferenc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 Rad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